

## 2018학년도 제 5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년 4월 30일(월) 14:00~16:0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종진 (위원장)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박의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불참위원 : 염영섭 (학교법인 상임이사)  
최효영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김현정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 배 석 :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진성현 (재무팀 차장),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김남진 (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이근화 (기획예산팀 직원)

###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확인 및 심의 보고자료 내용 해설

- 2017 학년도 회계결산보고 및 2017 학년도 적립금 현황 보고 자료를 설명함.

① 재무팀(진성현 차장 배석)에서 아래와 같이 2017학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함.

- 아 래 -

(단위 : 억)

구분	등록금	비등록금	계
세입	1,002.9	731.1	1,735.0
세출	1,002.9	731.1	1,735.0

\* 세입 : 등록금,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본부채수입, 전기이월자금

\* 세출 :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자본부채지출, 차기이월자금

② 기획예산팀(김장훈 과장 배석)에서 적립금 현황 및 목적 변경 내역 등에 대해 설명함.

## 2. 등록금 심의 관련 위원 발언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대차대조표 상 고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진성현 (재무팀 차장)

회계기준에 장부가로 부기하도록 돼있음. 건물은 건축가액에 해당함. 토지는 예전보다 시가가 상승했으나 교육용 부지 매각은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므로 유의미하진 않음.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순수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진성현 (재무팀 차장)

순수 부채는 21억 가량이며 약 3년 이내에 전부 상환 예정임.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남양주프로젝트기금을 목적 변경하였다고 했는데 기부자 동의 여부와 남양주프로젝트대응 기금이 무엇인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지금까지 목적 변경된 금액은 모두 기부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남양주프로젝트대응 기금은 지금까지 프로젝트 추진에 사용된 금액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임.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현재 남양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남은 기금 잔액은 얼마인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현재 7.5억 원 가량 남아있음.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남양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추후 소송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이종진 (위원장)

남양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소송은 없을 예정임.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남양주 프로젝트 기금의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2.5억 원 추가 적립으로 충분한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남양주 프로젝트 기금 잔액 및 대응기금을 설정하여 부족하지 않은 상황임.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동문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음. 학교의 거버넌스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 협조하는 데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 학교가 새로운 것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동문회에서 학교와 협력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학교 측에서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 학교 동문 중에는 학교를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동문들이 많음. 학교와 동문이 서로 협력적이면 학교 예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박익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미라클 행사에 교비는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미라클과 총장배 경연대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함. 여기에 학생축제기금 1억 원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임.

**이종진 (위원장)**

미라클과 총장배 경연대회는 서로 다른 사안임. 학생축제기금으로 1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미라클 축제 금액 2.5억 원 가량은 총장님의 펀드 조성으로 이미 초과 달성하였음. 펀드 초과 금액은 차년도 이후 미라클 개최시 사용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1억 원 적립금 배정은 미라클과는 관련 없는 금액임.

**박익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입찰 공고에는 미라클과 경연대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회계 상 지출이 분리돼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각 행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함. 학생들의 사기 진작 취지로 가을 총장배 체육대회를, 봄에는 총장배 경연대회 거리제를 기획한 것임. 미라클은 별개의 이벤트성 행사로 봤으면 함. 따라서 경연대회와 미라클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지출 역시 분리하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해해줬으면 함.

**이종진 (위원장)**

경비 절감 차원에서 같이 입찰을 진행했을 수 있지만 두 행사의 회계는 분리된 상황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전 비대위에서 미라클은 기부금으로 전액 충당하겠다고 확인을 받은 바 있음. 두 행사가 분리되어 있다면 왜 미라클 추진위원회에서 총장배 경연대회를 논의했는지 의문임. 예산안도 두 행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음. 단순히 4억의 자금을 모으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하였음. 이런 점에서 두 행사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1억 원의 기금 지출 부분이 기부금을 통해 교비 보전이 되는 부분인지.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현재 총장배 경연대회 학생축제기금은 비등록금 회계로 이루어졌는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학생축제기금은 비등록금 회계에서 적립되는 금액임. 등록금재원으로서는 기금 적립이 불가능함.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등록금, 비등록금 회계를 떠나서 학생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 신입교원 충원을 등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비가 축제기금으로 동원되는 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봄.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한 교수님이 두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점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두 행사는 다른 사안임. 총장배 경연대회는 연습비용 등이 이미 지출이 되었고, 미라클은 외주를 주는 행사이며 기간만 비슷할 뿐 취지도 다름.

**이종진 (위원장)**

학생입장에선 다른 데 사용될 수 있는 교비가 축제기금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만 거리 연극제의 연극 또한 중요한 교과과목에 해당되며 학생들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함.

**박익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학생축제기금으로 현재 7,0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무대나 행사 규모에 비해 기존의 학생회 축제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임. 또한 학생회 주최 학생 축제의 경우 교비에서 55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 상황에서 1억 원이라는 큰 금액 지원을 결정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출연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이 듦. 우정원 학생식당

재계약 때에도 추가 금액 때문에 학생 경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듣고, 학생회 요청에 의해 학생 경비 보전에 대한 답을 들었음. 이런 상황에서 1억 원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김.

####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학교 발전계획에서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바 있고 그 일환으로 학생축제 기금 적립이 있던 것임. 총장님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지원을 통해 소통하겠다는 취지임.

####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총장님의 취지는 동의하며 구성원들의 단합이라는 차원에서 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비대위에서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음.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보임. 2016년도부터 총학생회에서 근로 장학생에 관한 이슈, 교양 교육 추가 개설 및 학습 다양성 보장에 대해 여러 번 요구한 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비해, 미라클 결정 이후로 연극 수업이 빠르게 충원되는 점 등은 학생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부분임. 또한 초기의 결정과 다르게 현재 집행만 남은 상황에서 기금까지 배정된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드는 상황임.

#### **이종진 (위원장)**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학생축제기금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며, 미라클의 경우에는 교비로는 충당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한 부분임.

####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에서도 미라클 행사에 대해 5,000만 원 추가 전출이 있으며, 미라클과 총장배 경연대회는 분리되었다는 점 또한 명확함.

####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총장배 경연대회는 작년 11월에 기획하여 열 개 팀에 연습비를 지급하였고 미라클 준비 전부터 따로 진행된 사안이며 미라클은 전액 기부금으로 충당됨. 학생 측에서 이슈가 되는 총장배 경연대회에 투입되는 1억 원은 학생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한다면 다음 예산편성 시 재고할 수 있음.

####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학생 측 의견은 학생회 주최 축제에 투입되는 550만원과 학교축제기금에 투입되는 1억 원에 대한 괴리에 대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의사표현으로 이해되며, 추후 예산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첫째로, 공연비의 경우 같은 업체에서 진행을 해도 크게 절감되지 않는다고 미라클 주최 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서 비용 절감에 대해 의문이 있음. 둘째로는 총장배 경연대회 연습비중 식비 사용 등 통제에 대해 의문이 들었으나 전액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음. 셋째로 총장배 경연대회가 학생문화축제의 형식을 빌려 운영된다면 대동제, 인권 주간 등 학생회가 진행하는 행사의 장소나 일정 조정을 하면서까지 진행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듦. 학생 측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은 교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추후 기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답변임.

**박의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학생 측의 입장은 미라클과 총장배 경연대회를 다른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음. 남아있는 회의록이나 자료 등을 요청해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현 기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음.

**박의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특정목적기금 중 서강사랑기금은 학생 단체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쪽으로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서강사랑기금은 사용 목적을 학교에 일임하는 기금임. 학교가 목적을 지정할 수 있는 기부금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특별사업기금 중 교원임용기금이 0원으로 되어있는데.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교원임용기금은 해당 용도로 기부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소액임. 사용 목적은 교원 임용 시 제반 비용으로 쓰임.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교원임용기금과는 별개로, 매년 6월 이사회에서 재정을 고려하여 차년도 교원 T.O 배정을 함. 올해에도 T.O 외에 추가로 2명이 배정됨. 학교의 교육의 질을 고려하고 있음.

**이종진 (위원장)**

2016년에 교원 충원율이 최고점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교육부에서 권고하고 있음. 재단에서는 학교 재정을 고려하여 전임교원 충원에 대해 퇴직자 대비 적게 뽑을 것을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본부에서는 최대한 교원 충원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이사회 회의에 의하면 예체능 계열을 제외 시 사립대 중 전임교원 충원율이 높았음. 운영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70% 충원율을 권고했지만 학과 통합 등이 진행될 때에는 교원 비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현재는 유지하는 기조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학생들과 학교 측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음. 학교는 전망을 많이 보는 데에 비해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전임교원 충원율이 100% 이하인 경우 교육에 있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음.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학교 입장에서는 교무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안임. 수업 시수와도 연관이 있고, 수업 시수가 늘어나면 연구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연구력 향상과 조율도 해야 되는 점, 지표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회계 결산 부분의 교육 외 수입 항목에서 언론사 보조금이 교비 쪽에서 지원금이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성현 (재무팀 차장)**

그것은 비예산으로 처리되어 있음.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자료들을 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임. 작년도에는 등록금, 비등록금 비중이 비슷했는데 현재 비등록금 회계가 감소함. 또 국가 보조금, 장학금 등이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재정에 대한 요청은 많은 상황임. 현재 학교가 교육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 재정수지가 계속 악화되어서는 안됨. 학생들도 학교 재정을 감안하여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장학금 통계가 변화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김남진 (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과거에는 교육부 통계지침이 수업료 감면 성격의 장학금위주였지만, 그 이후에는 각종 학생지원 등의 지출도 장학금 통계에 반영되도록 확장됨.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곤자가 기숙사의 부채 상황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부채로 잡혀 있는지.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곤자가 기숙사 건물 자체 유한회사 내에서 처리하고 있고, 교비와 무관함.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실험실습비, 학생지원금 명목이 어떻게 예산에 잡혀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 시설비, 운영비 항목이 학부 별로 배정된 세부적인 자료를 알 수 있는지.

**김남진 (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본부에서 각 학부의 실험실습비를 지정하지는 않음. 실험실습요소 단가를 고려하여 각 학부에 통보하고 총액내에서 자율 예산을 편성함. 세부적인 예산 편성은 각 학부에서 하고 있음. 일반관리비, 운영비 등은 각 학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각종 용역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므로 학부 별로 산출이 되지 않음.



### 3. 결정사항

- 2017학년도 결산 확정 및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2018. 5. 8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이종진 기획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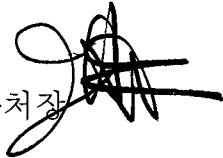
(교직원 위원)

(학생위원)

(외부전문가)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박의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